



“과학기술계 불신의 벽 허물터”

“기초과학 연구예산 대폭 늘리고 이공계 기피현상 치유 주력”

박호군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자로 들어오면 그만둘 때까지 연구자 이기를 고집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과학기술계는 연구하는 사람 뿐 아니라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사람,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등 다양한 그룹이 필요합니다.”

박호군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양한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아직 일부 남아 있는 연구서열 문화를 전환해 나간다는 것이다. 원로 과학자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면 미래에 한국이 필요한 기술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활용할 만한 직제

나 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인터뷰는 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뤄졌다. 취임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박 장관이 '과학기술' 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

-박장관은 과학자로서도, 과학 행정가로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꼽힌다. 박장관의 개인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하겠다. 취미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등산과 독서이다. 등산은 몸과 정신을 맑게 한다. 북한산이나 청계산 등 가까운 산을 주로 찾는다.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등산으로 얻을 수 있는, 심신의 건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각하기 바로 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부들과 눈 덮힌 태백산을 다녀오기도 했다. 독서의 경우, 사실 취미라기 보다는 삶의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책은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거의 공짜로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달라.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짐 콜린스 저, 김영사刊)이다. 엘지전자 구자홍 회장이 전직원에게 일독을 권하며 한 권씩 선사했다는 책이다. 내용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의 경우, 상식선에서 경영을 하면 일궈진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우,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사고로 문제를 파악하고 돌파해가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대한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최고 경영자(CEO)는 외부에서 영입해 온 사람보다는 내부에서 발탁한 사람이 많았다.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해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적고 있다. '고슴도치 컨셉'도 흥미롭다. 고슴도치는 평상시에는 볼품 없지만, 위기가 닥치면 옹크리고 가시를 세워 적이 잡아 먹지 못하게 한다. 이를 기업의 자기 고유영역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고유영역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생긴다. 과학자들도 한 번 읽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박 장관은 KIST 원장 재임 때도 '누가 내 치즈를 훔겼나' '삼성전자 왜 강한가' '펼터이는 물고기처럼' 등의 책을 직원

들에게 사서 주거나, 일독을 권하는 등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다. 그 결과 '우리는 잘하고 있는 데 간섭을 한다'는 등의 KIST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렸을 때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었다. 세종대왕은 조선왕조를 반석에 올려 놓은 사람이며, 이순신 장군은 구국의 영웅이라는 이유에서다. 어른이 되어서는 미국 오하이오주 립대에서 공부할 때(1975~1979년)의 지도교수가 거기에 추가됐다. 지도교수는 화학과의 레오 파케트 교수였는데 학자로서 정말 본받을만 했다.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으며, 부지런했다. 1년에 60편이 넘게 논문을 발표했으며,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 30여명의 신상이나 어려움 등을 항상 파악해 지도, 상담을 해줬다. 지도교수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30분 정도면 일시 퇴근했다가 오후 8시쯤 다시 연구실로 나왔다. 그런 뒤 오후 11시에 진짜 퇴근을 했다. 또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강의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도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다. 지도교수의 그런 성실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 행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학자로서의 길을 걸어 오는 동안 어려움은 없었나.

“유학을 갔을 때 군복무 때문에 끊겼던 학문의 공백을 메우는 게 아주 힘들었다. 육군에서 3년을 사병으로 근무했다. 제대를 4월에 했는데 7월에 유학을 갔다. 유학에 대비할 사이도 없이 가서 공부를 따라가느라 진을 뺐다. 밤을 낮삼아 공부했다. 어려웠지만 보람도 컸던 시절이었다. 또 한가지 어려움은 한국에 돌아와서다. 1982년에 귀국해 KIST에 들어갔는데 연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 때는 KIST와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이 통폐합되는 등 혼란스러웠던 때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가 사회적인 문제다. 자녀들은 이공계로 보냈는가.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사를 한 뒤 군에 사병으로 입대했다. 몇개월 있으면 제대한다. 둘째는 고려대 산업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둘째

는 장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결석도 못하게 됐다고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한다. 둘째는 당초 고교 때 문과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공대가 좋을 것이라고 권유해 대학 입시 때 공대로 교차 지원하도록 했다. 인문계열 보다는 공대가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졸업 뒤 어느 쪽으로 가도 되는 등 융통성이 더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아들도 받아들였다. 사실 인문계 졸업자는 이공계로 다시 들어오기 힘들지만 그 반대는 비교적 쉽다. 요즘 청소년들도 그런 점을 안다면 이공계 기피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둘째 아들은 요즘 이공계를 간 것에 만족해 하고 있다.”

“장관 심사 때 그것도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인터뷰어의 농담에 “그렇지도 모른다”며 박 장관은 웃었다. 사회 지도층 중에 지식 모두를 이공계에 보낸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 장관은 어쩌면 이공계 출신으로서 꽤나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 과학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동기가 있는가.

“한국 화학계의 큰 별인 이태규 박사가 1964년에 귀국했다. 그 당시 이 박사에 대한 소개가 신문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과학자에게 그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도 아주 드물었다. 신문에서는 이 박사를 한국인으로서 노벨 과학상 수상 후보가 될 만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그 당시는 대학의 화공과가 아주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노벨상을 타려면 이학계열인 화학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대 화학과를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금도 과학자로서 외길을 걸어 온 것이 자랑스럽다.”

- 과학계는 투서가 난무한다.

“그렇다. 이제 투서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과학계에 신뢰와 화합이 부족해서다. 과학자들끼리도, 또 정부도 믿지 못해 남을 헐뜯으려고 한다. 남이 못되어야 자신이 잘될 수 있다는 짧은 생각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에는 융합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의 벽도 터야 하는 데 서로 신뢰를 하지 않고 화합을 하지 않으니 융합이 제대로 될리 없다. 사람은 다리가 있으니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잖은가. 손발이 없는 과학기술이 왕래하길 바랄 수 없는 노릇이다. 즉, 과학자들끼리 먼저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고질병은 무엇이며, 치유책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다. 과학기술자 간이나 연구기관 간에도 마찬가지로여서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연구기관, 정부와 과학기술자간의 사이도 불신의 골이 깊다. 이는 잦은 정책 변경, 연구기관 통폐합 등의 후유증 탓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칙과 상식·규율이 통하는 과학기술계를 만들어 치유할 생각이다.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최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되, 그렇게 안되면 후임자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쌓아 놓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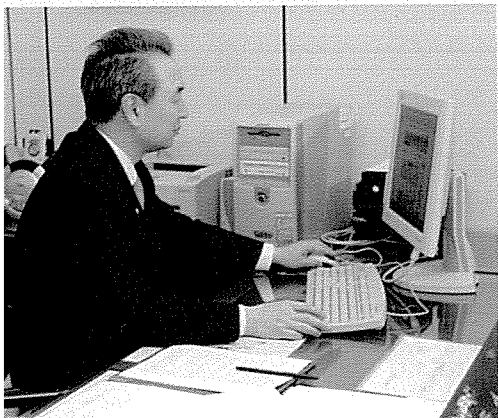
- 막대한 연구비를 들이고 있는 것에 비해 연구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기계나 사람이나 메커니즘은 마찬가지이다. 고장 나기 전에 유지보수를 잘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 효율은 자연이 높아진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과학기술계는 일반인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직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두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개방직을 도입한 초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돌이켜 평가한 뒤 영속성이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한 것은 새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겠다.”

- 박 장관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감하고 있다. 연합이사회를 비롯해 과학계에서도 그같은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관할 기관이 국무총리실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해야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수한 연구원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년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 외에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연금형태로 운영하고, 재취업 지원, 기업연구원에 대한 세제 혜택, 병역특례자의 근무기간 단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책은.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한가지가 체계적인 육성책이다. 과학영재교육원-과학영재학교-이공대로 연결하는 양성코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고, 초·중등고의 과학교육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기초과학 연구 예산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천 4백억원 수준이던 것을 올해는 1조3백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대학의 창조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우수연구센터와 지역협력센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생명윤리 파동’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생명공학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보니 윤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마련해 법제처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자들의 생명윤리 의식을 고취하도록 프로그램 개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강국이지만 안전성은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원자력 발전소에 파견하는 전문가를 현재

의 2명을 4명으로 늘려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 연간 5백억원 정도를 안전 심사에 투입해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원자력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전남 고흥에 설립할 우주센터의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공사 착공에 대한 인·허가는 다 받아냈다. 그러나 주민들의 토지 보상과 이주 등을 해결하느라 약간 늦어지고 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 수용과 주민과의 합의 보상 등을 병행해 우주센터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과학기술 특보나 수석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보좌관으로 격하됐다. 이 때문에 다른 과학기술 관련 공약도 제대로 지켜질 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제를 신설한 것도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또 과학기술 정책을 펴가는데 청와대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계도 이제는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해결할 것과, 과학계 스스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연합이사회 체제를 고칠 생각은 없다.

“그 조직이 출범한 지 이제 4년 밖에 안됐다. 고칠 점이 있으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하겠다.”



정리 | 박방주 중앙일보 과학담당기자